

“장마와 태풍으로부터 군민 지켜낼 것”

고창=안병철 기자

“장마와 태풍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전직원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

지난 20일 태풍으로 발달한 ‘오마이스’가 한반도로 올라오고 가을장마도 본격적으로 몰려오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는 35개 저수지를 비롯해 양배수장, 취입보 등 시설물 관리와 4,711ha면적의 토지유출 방지에 나섰다.

이는 지난 여름기간 동안 우기와 건기의 조화로 인해 모든 농작물에서 풍년이 기약된 상황에서 마지막 가을 태풍과 장마에 농민들이 노심초사하기 때문이다.

김경진 지사장과 43명의 직원들은 농업용수와 수리시설뿐만 아니라 농어업 생산기반조성과 소득증대 사업, 농어촌지역개발에 500여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김 지사장은 “고창지역은 대규모 야산 개발지역으로써 토사유출로 인한 용배수로 퇴적물과 하천 범람이 우려되고 있다”며 “농업용수 이용자 5천여명과 수리시설 감시원 60여명이 함께 재난극복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올해 라성지구에 다목적용수개발을 비롯해 동호, 대장지역에 배수개선,



옥산지역에 대구환경지정리 등에 87억원을 투입한다.

이어 5,513ha의 시설물 유지관리와 9개지구의 수리시설개보수, 소수력발전 등 유지부대운영 등에 72억원을 확보했다.

고창지역에 유일한 수력발전인 99kw급 소수력발전은 지난 2014년에 고수면 조산저수지에 5억원을 투입해 15m나차를 이용한 수력발전시설로써 연간 3천여만원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

이에 대해 김 지사장은 “영농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유휴급수로 발전을 가동한다”며 “정상적인 용수공급을 원칙으로 발전 수익금도 시설유지관리비로 환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산저수지 하단에 3천여평은 군민의 체육시설로 전환해 조만간 9홀의 파크골프장도 들어설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성내면 신흥지역에 수문설치, 심원면 화산지역에 그라우팅 여수도설치, 상하면 용정지역에 한해대책 등 재해위험 저수지정비에 31억원을 투입해 오는 10월 착공 예정이다.

이들은 아산면 계산지구 개발에서 둘레길을 이용한 탐방로와 주민 여가시설 설치로 인해 군민들로부터 칭찬과 함께 군수 표창을 받기도 했다.

고창지역의 대형 저수지는 1천만톤 규

모의 독립저수지로서 정읍지역으로 물을 공급하며 이어 500만톤의 계산저수지, 330톤의 조산저수지, 320만톤의 신흥 저수지 순이다.

한편, 이들은 농어업 소득증대사업으로 농지의 매매, 임대, 비축 등 맞춤형 농지지원을 비롯해 과수 전업농육성, 부채농가의 경영회생지원, 고령농업인의 농지연금, 65세 이상 경영이양직불, 비농가와 부채지주 농지관리의 농지임대수탁, 농지 DB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가운데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은 올해 45명이 신청해 10만평 규모에 40억원을 비롯해 농지 규모화 에도 20여명이 3만을 매매에 12억원 지원,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에도 25명이 참여해 28억원, 농가 경영회생에도 8명에게 33억원, 농지연금은 17명에게 3여억원을 지원했다.

최근 신도시개발 관련 LH사태의 보완 사업으로써 농지임대 수탁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짓기 어려우면 이곳 농지은행에 위탁, 이는 전업농육 선대상자에게 임대해 농지를 생산적,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이처럼 농촌 지역의 중심에서 선 농어촌 공사는 가뭄과 장마, 태풍 등의 어려움이 닥치면 총력비상 태세에 임하면서 미리 준비해야 하는 제2의 지지체이기도 하다.